

# 정양 시의 지역어 양상과 미학적 기능

— 지역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김혜원(전북대)

## < 목차 >

- |                         |                         |
|-------------------------|-------------------------|
| 1. 서론                   | 4 정양 시에 수용된 지역어의 미학적 기능 |
| 2. 정양의 지역어와 지역문학에 대한 인식 | 5. 결론                   |
| 3. 정양 시에 수용된 지역어의 양상    |                         |

## 1. 서론

정양(鄭洋, 1942~)은 1968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천정(天井)을 보며』가 당선되어 등단한 후 지금까지 9권의 시집을 간행하면서 꾸준히 창작 활동에 전념해 온 시인이다.<sup>1)</sup> 197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평론 『동심의 신화』(윤동주론)가 당선된 이후로 3권의 평론집과 1권의 산문집을 발간한 평론가이기도 하다.<sup>2)</sup> 그런데

- 
- 1) 증보판 및 시선집을 포함한 정양의 시집으로는 『까마귀떼』(1980), 『수수깡을 씹으며』(1984), 『빈집의 꿈』(1993), 『살아 있는 것들의 무게』(1997), 『까마귀떼』(1999, 증보판), 『눈 내리는 마을』(2001, 시선집), 『길을 잃고 싶을 때가 많았다』(2005), 『나그네는 지금도』(2006, 시선집), 『철들 무렵』(2009)이 있다.
- 2) 시화집(詩話集) 『동심의 신화』(신아출판사, 2001), 판소리 평론집 『판소리 더듬의 시학』(문학동네, 2001), 평론집 『세월이 보이는 길』(신아출판사, 2012), 산문집 『백수광부의 꿈』(작가, 2009)이 있다.

도 지금까지 그의 시에 대한 연구는 시집의 해설이나 문예지에 발표된 평론에 불과할 뿐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해설이나 평론도 그의 시세계가 “일상의 삶과 시대의 아픔과 의식과 현상 속의 고향”<sup>3)</sup>에 있음을 밝히고 있을 뿐이었다. 즉 사회주의자였던 부친으로 인한 유년기의 트라우마<sup>4)</sup>, 개인사와 민족사로 인한 상처를 그리움으로 극복하기까지의 고향에 대한 양가감정, 부조리한 근현대사에 대한 비판 의식과 저항 의식, 공동체의 원체험 장소로서의 유년 시절의 고향 탐색 등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특정한 관점이나 방법론을 가지고 학문 담론 차원에서 심도 있게 진행된 것은 최명표의 연구에 불과하였다.<sup>5)</sup>

이러한 현상은 근대 사유 체계가 낳은 ‘중앙/지방’의 이항대립적 문화 시스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근대/근대’라는 문학의 구획은 ‘중앙/지방’이라는 문단의 구획으로 이어져, 그동안 근대문학이란 곧 문화자본과 상징권력을 지닌 중앙문학이나 중앙문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능하였다. 다시 말하면 “근대라는 제도 혹은 제도로서의 문학 개념이 근대화되면서 나타난 관점이 지역문학”<sup>6)</sup>을 형성해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중앙문학의 중심성·주체성·자부심은 지역문학의 주변성·타자성·열등감을 조장하고 중앙문학에 대한 지역문학의 종속성이나 지향성으로 작용하는 기제가 되었다. 나아가 지역성·정체성·고유성을 담보한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지역문학마저도 그 의의와 가치가 폄하되거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양한 문학 담론을 생산해야 할 문학 연구가 문학사적 보편성

3) 오하근, 『고향과의 화해』, 정양, 『나그네는 지금도』, 생각의나무, 2006, 179면.

4) 정양의 부친은 일본에 유학하여 와세다 대학 상과에 재학 중 1923년 관동대지진 때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회주의운동을 하다가 두 차례 체포되어 2년여의 옥살이를 겪었다. 그러다가 6·25 직전 투옥되어 행방불명된 걸로 알려져 있다.(오하근, 위의 글, 192면.) 행방불명된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점쟁이가 예언한 날 아버지 대신 구렁이가 들어오는 이야기는 그의 친구 윤홍길의 소설 『장마』의 모티프가 되었다.(윤홍길, 『기린은 목이 길어』, 정양, 『까마귀떼』, 은애, 1980, 6면.)

5) 최명표, 『소문의 시적 구현 양상-정양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6) 노용무, 『전북 지역 시문학의 연구 현황과 과제』, 『국어문학』 제51집, 국어문학회, 2011, 102면.

이라는 이름 아래 중앙문학에 편향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였고, 그러한 연구 성과가 학문 권력을 획득하는 학문적 풍토가 파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다원성을 추구하는 탈근대적 사유, 정신적·문화적 식민 상황에서 벗어나 정체성과 자주성을 수립하고자 하는 탈식민적 관점, 특히 세계적 가치와 지역적 가치가 동등한 위상을 지니는 글로컬리즘(globalism)적 인식으로 ‘지역(region)’이라는 아젠다가 각 학문의 중요 논점으로 부상되었다. “근대 이후 지속된 민족 혹은 국민국가의 개념과 서구중심주의, 경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등 주변의 논리를 억압하고 배제했던 하나의 강력한 중심을 향한 반성적 시각”<sup>7)</sup>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에 한국 현대시문학 연구에서도 중앙문학에 편중되었던 과거 학문적 풍토에 대한 성찰과 함께 지역구심주의(local centripetalism)라는 새로운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문학의 지형학적 가치와 위상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근대 이전, 지역문학은 고유한 장소와 그곳에서 경험된 인격을 표현하는 고양된 문화 양식”<sup>8)</sup>이었기에, ‘중앙/지역’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의식하지 않고 지역의 정체성과 자생성에 친착한 지역문학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자신의 문학 정체성을 지역성에서 찾아 지역문학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전라북도 지역 언어(regional language)<sup>9)</sup>를 압도적인 비중<sup>10)</sup>으로 수용한 정양 시의 지역어<sup>11)</sup> 양상과 미학적 기능을 지역문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sup>12)</sup> 그것은 정양의 시가 지역어를 언어 예술의 한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지역문

7) 이재봉, 「지역문학사 서술의 가능성과 방향」, 『국어국문학』 제144호, 국어국문학회, 2006, 60면.

8) 송기섭, 「지역 문학의 정체와 전망」,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4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5면.

9) 이 논문의 지역어는 전북·전남을 포함하여 대방언권으로 쓰이는 전라방언, 충남 이남과 이접 형태를 보이는 전북방언 등이 혼재된 정양 시의 지역어를 모두 포괄할 것이다. 즉 전북 지역어로 엄격하게 한정하지 않고 비표준어를 지역어의 범주에 넣을 것이다.

10) 본 연구자가 파악한 바로, 정양의 시집 9권에 실린 614편의 시 중 지역어가 구사된 시는 255편이다. 이는 약 42%에 달하는 비율로, 정양의 시에서 지역어가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수치이다.

11) 이 논문은 정양 시의 지역문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방언’ ‘사투리’ ‘뱃말’ 등으로 불리는 용어를 ‘지역어’로 통일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화 가치를 지닌 문화 유산이자 문화 자원의 하나로 축적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만경강 유역 금만평야를 중심으로 한 ‘고향 시편’을 통해 해체되는 농촌 문화를 기록하고 농경 문화의 원형을 복원한 정양의 시에 지역어가 어떠한 양상과 비중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그 미학적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것은 지역어가 빠른 속도로 소멸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지역어를 미학적 원천으로 삼아 개성적인 시세계를 보여준 정양의 시가 실생활에서 살아 숨 쉬는 지역어의 보존과 복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한국 현대시문학사에서 지역어에 대한 연구는 다소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김소월, 백석, 이용악, 서정주, 김영랑, 박목월 등의 시에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언어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언어학, 예술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시학, 언어의 효과에 집중했던 수사학의 경계를 허물고 문화매개어로서의 지역어의 위상과 역할을 탐색하여 창의적 생산과 수용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최근의 문화 담론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시인들이 보여준 지역어는 대체로 해방 이전의 것들로 이미 상당 부분 박제화된 것들이다. 더구나 김소월, 백석, 이용악 등이 수용한 지역어는 남북 분단과 함께 단절된 것으로, 이들을 복원하여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따르는 것들이다. 그러나 정양의 시에 수용된 지역어의 대부분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전북 지역어이므로 지역어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먼저, 정양이 지닌 지역어와 지역문학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정양 시가 수용한 지역어의 양상을 음운, 어휘, 문법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언어학적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어에 부여된 미학적 기능을 서정시와 서술시로 나누어 시학적 차원에서 규명할 것이다. 이로써 지역어 수용을 중요한 문학적 의장으로 삼아 지역어에 시적 자질을 부여한 정양

---

12) 이 논문은 ‘한글맞춤법통일안’이 재정(再定)된 1988년 이후에 출간된 정양의 시집을 주요 텍스트로 삼는다. 그것은 활자화된 당시의 표준어가 지역어 사용의 의식성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1988년 이전에 발행되었던 정양의 시가 1988년 이후 수정과 퇴고를 거쳐 증보판이나 시선집에 재게재된 것은 정양의 지역어 수용의 의식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척도가 될 것이다.

시의 시문학적 의의와, 지역민을 언어 주체로 삼아 지역어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역문화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탐색한 정양 시의 지역문학적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양의 시를 텍스트로 하여 지역어의 양상과 그 미학적 기능을 탐색한 이 논문 역시 그동안 중앙문단을 중심으로 지명도를 쌓아 온 문인들의 작품을 위주로 정전화했던 기존 문학 연구의 틀에서 탈피하여, 지역문학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한국문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 2. 정양의 지역어와 지역문학에 대한 인식

지역문화의 성격은 지역성으로 집약되고, 그 지역성은 고유한 장소에 대한 현상성을 역동적으로 드러낼 때 획득된다. “방언이나 사투리라 불리는 지역어는 일차적으로 지역의 특징, 곧 지역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sup>13)</sup>에, 문학 작품에서 지역성을 드러내기에 가장 용이한 것은 지역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역어는 작가의 출생지·성장지·거주지 등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문학 작품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학적 기능을 위한 문학적 전략으로 의도적으로 채택되어 작가의 개성적인 언어와 독창적인 문체를 형성하게 된다.

정양의 전북 지역어 수용도 그 시적 자질과 미학적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전북 김제군에서 출생한 정양은 김제중앙국민학교에서 1학년을 다니다가 서울효제국민학교로 전학한 후, 다시 1년6개월이 지난 1949년 김제공덕국민학교로 내려와 한국전쟁 기간을 김제에서 보낸다. 익산남성중학교와 남성고등학교를 거쳐 1965년 동국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한 후, 김제죽산중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익산원광고·전주신흥고·우석대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임을 한다. 이 과정에서 1968년에 시가, 원광대학교 국문과 대학원을 졸업하던 1977년에 평론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13) 이태영, 『방언의 문화적 가치』, 『새국어생활』 제20권 제3호, 국립국어연구원, 2010, 88면.

이러한 연대기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린 시절 짧은 기간이나마 서울 소재의 초등학교를 다녔고 동국대 국문과에서 수학하는 동안 서울 생활을 하였으며, 서울 중앙지 신춘문예에 두 차례나 당선되었고 국어교사와 국문과·문창과 교수로 재직했던 관계로 정양의 표준어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도 해박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양은 중앙문단을 기웃거리지 않고 창작 시기 전반을 고향에서 보내면서, “전라도의 농경언어에 담긴 애환”<sup>14)</sup>을 전북 지역어로 시화하고자 했다.

금빛나는 꿈 금빛나는 우리의/사투리들을/그런 것들을 내내 잊고 지냈다//무슨  
미칠 일로/빛나던 귀엣말들 잊어버리고/무지한 세상일에 시달렸던가

— 「금팔찌」 부분

떠들다 보면/시나 군이나 도 따위/경계표지와/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그  
런 인사말들을/허망하게 지나치곤 한다//어서 오건 말건 안녕히/가건 말건, 표준말로  
적힌 것이 차라리/맘에 걸리는/그 맹랑한 것이 마을도 가르고 더리는/안방과 건넌방도  
갈라버린다//사람들은 어찌자고/그 맹랑한 것들을 아무 데나 아무렇게나/거미줄처럼  
늘어놓고 <중략> 거레도 역사도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사투리 하나 믿고 어찌자고  
<중략> 남북으로 동서로 좌우로 우아래로/한도 끝도 없이 갈라가면서/한도 끝도  
없이 잇속들을 쟁겨먹고 <중략> 그 허망한 표준말들을/무심코 넘나들다가/볼모처럼  
말없는 이 나라/비슷비슷한 산천들이 문득 무섭다

— 「경계표지」 부분

정양의 이러한 언어 의식은 첫 시집에 수록된 「금팔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잠든 아내의 팔목을 바라보면서 팔아먹은 “금팔찌”를 떠올리고 한때는 젊은 부부의 내밀한 언어로 기능했을 “금빛나는 꿈 금빛나는 우리의/사투리들”과 “빛나던 귀엣말들”을 “내내 잊고 지”낸 “미칠 일”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시이다. 그런데도 “금빛나는 꿈”과 “금빛나는 우리의/사투리들”을 “금팔찌”에 비유하고 있는 이 시는 정양의 “사투리”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정양은 문자언어로 기능하는 표준어에 밀려 “사투리”가 소멸되는 현상을 확인하고,

14) 1982년 전라도의 농경언어에 담긴 애환을 한 데 모아보고 싶어서 동진강의 정렬, 금강의 이병훈, 만경강의 정양, 이렇게 셋이서 삼인시집 『어느 흉년에』(인동, 1982)를 냈음(정양, 『나그네는 지금도』, 앞의 책, 231-232면.)

“귀엣말”의 음성언어로 기능하는 “사투리”의 가치를 금불이만큼 귀중한 문화 자원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 시집에 수록된 『경계표지』에서는 균질성을 전제로 한 근대적 사유 체계와 공용어로서의 표준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 정양은 “표준말로 적힌” “경계표지”가 “사투리”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타자화하여 “마을도 가르고 더리는/안방과 건넌방도 갈라버”리며 “남북으로 동서로 좌우로 우아래로” 갈라가면서 지역과 세대와 이념을 이질화시키는 “맹랑한 것”이며 “허망한” 것임을 다소 직설적인 어조로 비판한다. 또한 근대 민족국가 형성의 더불어 의사소통의 동시성, 문자 행위의 경제성, 행정의 효율성 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된 “표준말”이 중앙집권화 이데올로기의 무기가 되어 법률과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사투리”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폭력성을 지적한다. 나아가 학교 교육을 통한 언어의 획일화가 다양한 문화를 균질화시킨 현상을 “비슷비슷한 산천들이 문득 무섭다”라고 지적하면서 “표준말”이 가하는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서울말의 주변언어라는 열등적 혐의가 관용적으로 묻어 있는 ‘사투리’나 ‘방언’보다는 요즘 자주 쓰이는 텃말이라는 말이 나는 훨씬 정답다. 사투리, 방언, 텃말이라는 말들이 서로 같은 뜻인지 아니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건지, 표준말에게 빼앗긴 언어적 자주성을 태생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이 텃말이라는 신조어는 언어나 민족의 정체성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특히 애용되는 것 같다.

— 「입에 익은 말, 몸에 익은 말」<sup>15)</sup>

또한 정양은 그의 산문 『입에 익은 말, 몸에 익은 말』에서 “서울말의 주변언어라는 열등적 혐의가 관용적으로 묻어 있는 ‘사투리’나 ‘방언’이라는 용어보다 “표준말에게 빼앗긴 언어적 자주성을 태생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텃말”이라는 신조어에 주목한다. 그는 백인문명에 심각하게 오염된 나라일수록 입에 익은 “표준말” 대신 몸에 익은 “텃말”을 사용하여 언어적·문화적 자주성과 자기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나라와 민족과 지역과 종교와 문화의 필연적 경계를 함부로 무너뜨리는 백인들의 세계화 전략, 그리고 어찌면 그 백인들의 세계화와 페나

15) 정양, 『입에 익은 말, 몸에 익은 말』, 『전북의 재발견-말』, 전라북도청, 2010, 82면.

답아 있는 표준말의 음험하고 몰상식한 폭력”을 지적하면서, 이 “텃말”을 언어제국 주의가 자행하는 “표준말”의 역기능을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한다. 초기의 “사투리”에서 최근의 “텃말”이라는 신조어로 용어만 바꾸었을 뿐, 그는 시종일관 언어적·문화적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그리고 문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역어에서 모색하였던 것이다.

아니 이게 누구대여 앵이 아녀?//나도 잘 못 알아듣는 내 이름을/용케도 찾아내는 마을  
— 『은행나무』 부분(\*밑줄-인용자, 뒤의 밑줄도 마찬가지임)

정양의 이러한 언어 의식은 ‘고향 시편’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학적 특성이 짙은 시로 심화된다. 그것은 정양의 고향이 “나도 잘 못 알아듣는 내 이름을/용케도 찾아내는 마을”이기 때문이다. 정양의 이름 ‘양’을 ‘앵’으로 부르는 움라우트(‘|’모음 역행동화)는 전북 지역어의 전형적인 음운현상이다.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고향에 있음을 확인한 정양은 고향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극복하고 ‘마현리 시편’을 본격화하게 된다. 그 결과 지역민들의 개별 경험에 뿌리를 내린 지역 정서와 지역의 지리·역사·사회·문화·예술 등의 지역적 가치가 그의 ‘장소에(topophilia)’와 지역어를 통해 생생하게 재현되기에 이른다.<sup>16)</sup>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문학으로서의 정양의 ‘고향 시편’이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세계로 이상화된 농촌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유·성년기를 보낸 농촌마을 ‘김제군 공덕면 마현리’의 초기 ‘마현리 시편’에서 산업화로 인해 몰락해 가는 농촌 풍경을 기록하여 ‘폐촌에서’ 연작시 5편과 ‘빈집의 꿈’ 연작시 11편으로 보여주었다. 한때 이사해서 살았던 산촌마을 ‘완주군 비봉면 수선리’의 ‘수선리 시편’은 “이 산마을에까지 찌들대로 찌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자본의 그늘”과 “형벌처럼 자본의 찌꺼기를 마지막까지 뒤적거리는 벽지”<sup>17)</sup>에서 쓴 시편들이었다. 이처럼 천민자본주의가 산촌에까지 침투하여 몰락화되어 가는 세태를 목격한

16) 이에 관한 연구로는 본 연구자의 논문(김혜원, 『정양 시에 나타난 지역문화의 양상과 지역문학적 가치』,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이 있다.

17) 정양, 『살아 있는 것들의 무게』, 창작과비평사, 1997, 129면.

그는 “농경문화가 주눅들어버린 요즘” “그게 다 우리네 삶의 끈이었거니 싶어”<sup>18)</sup> 24절기를 바탕으로 세시풍속을 탐구한 『철들 무렵』을 발표한다. 따라서 원체험의 장소 ‘마현리’를 농촌공동체의 원형적 공간으로 설정하여 해체된 농경문화를 복원하고자 한 정양의 시는 “오늘의 지역문학은 억압과 저항의 역사를 주고받는 문화 지역이자 생태 단위로 재정의되어야 한다.”<sup>19)</sup>는 김양선의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이었다. 즉 그의 시는 자본주의의 세계화 전략에 의해 피폐해진 농촌을 복원하기 위해 저항적 차원에서 시도된 지역구심주의로서의 지역문학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정양은 자신의 삶터로서의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삶을 배태한 지역에 대한 ‘장소에’를 바탕으로 창작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 지역어를 수용하여, 언어제국주의와 중앙문학에 의해 폄하된 지역어와 지역문학의 가치와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지역어와 지역문학에 대한 정양의 인식은 근대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동질화·표준화 문화 전략에 맞선 적극적인 시적 저항의 한 방법이었다.

### 3. 정양 시에 수용된 지역어의 양상

지역어에는 그 지역의 독특한 자연과 역사, 풍습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기게 마련이다. 그것은 지역어에 국가적·민족적 차원으로 쉽게 보편화시킬 수 없는 독특한 사상(事象)이 실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역어는 동일한 어휘를 발음하는 음운 현상도 다르고, 동일한 사상(事象)을 지칭하는 어휘 형태도 다르며, 그것을 운용하는 문법 체계도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정양의 시 역시 음운, 어휘, 문법상의 측면에서 전북 지역어의 여러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18) 정양, 『철들 무렵』, 문학동네, 2009, 5면.

19) 김양선, 『탈식민의 관점에서 본 지역 문학』, 『인문학 연구』 제10권,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3, 12면.

## 3.1. 음운상의 특성

표준어가 글이 중심이 되는 언어라면, 지역어는 말이 중심이 되는 언어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담화 상황에서 발화되는 구어체는 소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리하여 그동안 지역어 연구는 대부분 음운론이 중심이 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구개음화, 전설모음화, 움라우트, 원순모음화를 전북 지역어의 보편적인 음운 현상으로 파악한다.<sup>20)</sup> 정양 시의 지역어에 나타난 음운 현상도 이들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굉일(공일, 휴일), 구렁이(구렁이), 댐배(담배), 뉘전거렀다(둔전거렀다), 땅덩이(땅덩이), 떠돌드래도(떠돌더라도), 마구잡이(마구잡이), 맹경(만경), 베리지 털(베리지들), 뱀(뱀), 쏘댕기다(쏘다니다), 앵이(양이) 어채피(어차피), 에미에 비(어미아비), 예펜네(여편네), 윈(온), 윈통(온통), 윈수(윈수), 정갱이(정강이), 꺾이지(죽이지), 지에비 지에미(지아비 지어미), 지푸래기(지푸라기), 채곡 채곡(차곡차곡), 채리고(차리고), 채이는(차이는), 퇴깁이똥(토끼똥), 퇴끼값(토끼값)
- (2) 가치(갈이), 감쪽가치(감쪽갈이), 걸레쪽가치(걸레쪽갈이), 송년(홍년), 송악한(홍악한), 지들림서(기다리면서)
- (3) 무신(무슨), 씨러라(쓸어라)
- (4) 덜프덕(덜퍼덕), 드렵고(더럽고), 떠돌드래도(떠돌더라도), 습 삼 년(석 삼 년), 슬(설), 으른(어른), 철프덕(철퍼덕), 허드라고(허더라고), 혼 바지(헌 바지)

정양 시의 지역어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움라우트였다. (1)에서 보듯, 움라우트는 명사·동사·관형사·부사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중 ‘뱀’은 서술격조사 ‘이다’와 연결되어 ‘뱀이여’로 쓰이는 과정에서 움라우트가 실행된 경우이다. 그러나 ‘뉘전거렀다·떠돌드래도·윈·윈통·윈수·채곡채곡’은 움라우트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 즉 ‘|’모음이나 ‘|’선행모음이 후행하지 않은 환경임에도 움라우트가 실행된 경우이다.<sup>21)</sup> (2)는 후행하는 ‘|’모음으로 구개음화가 실행된 경우이고

20) 이태영, 『전라북도 방언 연구』, 역락, 2011, 115면.

21) 최전승은 이를 모음 전설화와 연관된 움라우트 기능의 전용 과정으로 보았다.(최전승, 「국어 움라우트 현상의 유추적 확대와 화용론」, 『우리말글』 제31권, 우리말글학회,

(3)은 ‘ㅡ’가 ‘ㅣ’로 바뀌며 전설모음화가 실행된 경우이다. 음라우트가 빈번한 것과 달리 구개음화나 전설모음화는 그리 빈번하지 않았고, 원순모음화 현상은 정양 시의 지역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4)에서처럼 ‘ㅣ’가 ‘ㅡ’로 고모음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상의 음운상 특성에서처럼, 정양 시의 지역어에는 고모음 ‘ㅣ’나 ‘ㅡ’가 원순모음 ‘ㄱ, ㅋ’나 중고모음 ‘ㅣ’보다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정양 시가 소리를 쉽고 부드럽게 내기 위해 혀나 입의 움직임을 적게 하는 전북 지역어의 음운론적 특성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sup>22)</sup> 사례가 지극히 많아 따로 항목화하지는 않았지만, ‘허드라고(하더라고)’와 같이 ‘ㅏ’가 ‘ㅣ’로 발음되거나 ‘전생(전생에)’와 같이 ‘ㅟ’가 ‘ㅡ’로 발음되는 현상도 이와 동일한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 3.2. 어휘상의 특성

지역 어휘를 고찰하면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의 양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곡창지대인 금만평야를 공간적 배경으로 한 정양 시의 지역어에는 마한·백제 시대로부터 배태된 농촌 문화의 세목들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정양 시의 지역어에 나타난 어휘상의 특성을 자연, 동물, 식물, 사람, 의복, 음식, 가옥, 농경, 민속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산날망(산마루)/날망(마루), 고라실(고향, 고장), 멧갓(메), 땅덩이(땅덩이), 바위땡어리(바위덩어리), 뚝길(독길), 둔덩(둔덕)/밭두덕/밭두럭(밭둔덕), 지꺼리밭/짓거리밭(김칫거리밭), 또랑물(도랑물), 둥병물(웅덩이물), 쏘(소)
- (2) 맹년(명년), 내맹년(내명년), 오닐(오늘), 어저끄(어저께), 새복(새벽)
- (3) 아랫두리(아랫도리), 우아래(위아래)

위는 ‘자연 현상’과 관련된 지역어들이다. 산·들·물과 관련된 (1)은 농촌 세계를 이루는 자연 환경과 주변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표준어 ‘둔덕’에 해당하는

2004.)

22) 이태영, 앞의 책, 198-199면.

지역어는 ‘둔덩/두덕/두릭’의 변이형(variants)을 보여준다. ‘지+거리+밭’의 합성어 ‘지꺼리밭/짓거리밭’에는 ‘김치’의 지역어인 ‘지’가 사용되었다. 이 ‘지’는 고유어 ‘디히’에서 온 것으로, 한자어 ‘침채’(沈菜)에서 온 표준어 ‘김치’에 비해 언어적 자주성이 훨씬 강한 어휘이다. 시후·시간과 관련된 (2)에서 ‘오날’은 ‘一’ > ‘一’의 교체 현상을, 방향·위치와 관련된 (3)에서 ‘아랫두리’는 ‘一’ > ‘一’의 교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 (1) 땀생이(엷소), 퇴깡이/퇴끼(토끼), 구렁이(구렁이), 비얌(뺨), 그시랑(지렁이), 중태기(버들치), 기름치(왕종개), 깔따구(농어), 찌가사리(동자개), 둥구(말뚱구리), 날타리(날파리)
- (2) 비얌나무(뺨나무), 철쭉낭구(철쭉나무), 튀밥꽃(조팝꽃), 독새풀(독새풀), 잔다구(잔디), 빼비(뺨기), 나승개(냉이), 똥감(돌감)

위는 ‘동식물’과 관련된 지역어들이다. 문학 작품에서 동식물은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자주 동원되는 소재이다. 짐승·물고기나 곤충·벌레와 관련된 (1)에서 ‘구렁이’와 ‘비얌’은 구비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민속적 소재이다. (1)의 ‘비얌’과 (2)의 ‘비얌나무’를 통해 ‘뺨’이 ‘비얌/비얌’의 변이형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무·꽃·풀이나 과일·열매와 관련된 (2)의 ‘낭구’는 중세어의 자취를 보여주는 귀중한 어휘이다. 나무의 중세국어 ‘남기[木]’을 그대로 소리 낸 ‘낭구’는 역사적 잔존형으로서의 지역어이다.

- (1) 농투스니(농투스이), 군땡위원장(군당위원장), 소개쟁이(중개인), 으른(어른), 아자씨(아저씨), 시에미(시어미), 내오간(내외간), 지에비 지에미(지아비 지어미), 예펜네(여편네), 각씨(각시)·꽃각씨(꽃각시), 새각시(새색시), 홀애비(홀아비), 예미애비(어미아비), 엄니(엄마), 아뜰·아떨(아이들), 머스매(머슴애), 지지배(계집애), 가시내(계집아이), 자식(자식)
- (2) 배창자(배창자), 알똥똥이(알똥똥이), 오쭈개(방광), 조매가리(좃대가리), 정갱이(정강이), 외약다리(원다리), 외약손(원손), 손모강댕이(손모가지), 송까랑(송가락), 나빠닥(낮바닥), 가슴엿피·가슴에피(가슴앓이), 꽃병(성병), 용개(용두질)·용갯물(용똥물)

위는 ‘사람’과 관련된 지역어들이다. 직업·호칭과 관련된 (1)에서 ‘군당위원장’은 지리산 빨치산의 ‘군당위원장’이 된소리화된 것으로, 이는 시대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지역어이다. 신체·질병·생리와 관련된 (2)에서 ‘꽃병’은 ‘성병’을 완화시킨 어휘로, 시적화자의 애정이 투영된 단어로 짐작된다. 그것은 “꽃병을 앓다 병원에 간 영이는/아직 돌아오지 않는데”(『방명록』)에서 보듯, “꽃병”에서의 병인이 ‘성병’에서의 그것보다는 좀 더 우회적이고 완화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 (1) 솜리(이리), 맹경(만경), 불갯마을(붉은 갯마을, 화포리), 화순듬병(화순웅덩이), 뱅원(병원), 슈퍼마켓(슈퍼마켓), 한디치깐(집채 바깥의 화장실), 뒤안(뒤꼀, 뒤뜰), 되창문(들창문), 농지기(농 안의 세간), 텔레비(텔레비전), 니야까(리어카)
- (2) 오리쌀(찐쌀), 소주아래기죽·쇠자래기죽(소주찌꺼기죽), 보리민대(삶은 보리나 구운 보릿대), 콩밭지꺼리(콩밭에서 자란 김칫거리), 댐뱀(담배), 널벽지(넓적한 질그릇), 움박지(움푹한 질그릇), 잘랭이(자루)
- (3) 난닝구(러닝셔츠), 라이방(선글라스)

위는 ‘주생활·식생활·의생활’의 생활 세계와 밀접한 지역어들이다. (1)은 지명·마을, 건물·마당, 방·세간 등과 관련되어 지리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맹경’은 정양의 고향 ‘만경’이 음라우트를 일으킨 지명이다. ‘솜리’는 현재 ‘익산’의 옛 이름 ‘이리(裏里)’를 순우리말로 부른 ‘속리’가 자음동화된 지명이다. 정양 시에는 ‘맹경’ 사람들이 ‘솜리’의 ‘뱅원’을 이용했던 문화지리적 상황이 드러나 있다. (2)는 주식·부식, 반찬·별식, 부엌·그릇 등과 관련된 지역어들이다. 덜 익은 벼를 찐 쌀로 ‘올계쌀’로도 불리는 ‘오리쌀’, 소주를 담그고 남은 술 찌꺼기로 쏘 죽 ‘소주아래기’·‘쇠자래기’, 덜 여문 보리를 삶아 말리거나 보릿대를 불에 구운 ‘보리민대’는 6·25 직후 가뭄까지 겪친 궁핍한 농촌의 기근을 달래준 중요한 구황식품이었다. (3)은 복식·장식과 관련된 시어들이다. ‘선글라스’를 뜻하는 ‘라이방’은 ‘선글라스’의 유명 상표인 ‘레이밴(Ray-Ban)’의 베트남식 발음이다. 월남전 파병 용사들이 이 선글라스를 쓰고 찍은 사진을 고국으로 보냈던 데서 유래하는 이 ‘라이방’에서 당시 시대 상황을 추측할 수 있다.

- (1) 당그레(고무래), 팽매체(광개), 지푸래기(지푸라기), 서근새(삭은 지푸라기), 나락섬(벼 한 섬), 싹나락·싹나락(볍씨)
- (2) 하늘(하늘), 하늘님·하늘님(하느님), 당골할미(무당할미), 터주때감(터줏대감), 슬(설), 노내깃날(노래깃날), 술맥잇날(백중날), 삼시랑(삼신, 삼신할머니), 앵매기(앵막이), 연자새(얼레), 백새금치(흰 사금과리 가루), 깽매기(깽과리), 니더우내더우맏더우(네더위내더위맏더위), 호박고니(땅에 원을 그어 노는 놀이)

위는 ‘농경문화·민속문화’와 관련된 지역어이다. 경작·타작·곡물과 관련된 (1)은 농업 생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표준어 ‘광개’에 대응하는 ‘팽매체’는 대나무 끝을 열십자 형태로 가른 후 그 틈에 흙이나 돌맹이를 넣었다가 논밭의 새때를 쫓을 때 던지는 농기구이다. (2)는 하늘과 땅의 원리를 경배하며 생명공동체의 대동적 삶을 추구하는 세시풍속·민속놀이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어휘들이다. 표준어와 달리, ‘하늘님/하늘님’의 변이형에는 ‘크탈락’ 현상이 실행되지 않았다. ‘슬’은 명절 ‘설’에 대응하는 지역어로, ‘ㄱ’이 ‘ㄴ’로 고모음화된 경우이다. ‘노내깃날’은 노린내가 심한 벌레 ‘노내기(노래기)’를 쫓기 위해 콩을 볶아먹는 날이고, ‘술맥잇날’은 김매기를 끝내고 호미씻이를 하면서 머슴들이 술을 마시는 백중날이다. 한편 ‘호박고니’는 널찍한 원을 그어 노는 땅놀이이다. 체험의 층위에서 작용하는 관계로 표준어로 전환시키기 힘든 이 ‘호박고니’는, “특정한 지방의 문화에는 있고 가상의 표준문화에는 없는 事象이나 관념을 지시하는 기호”<sup>23)</sup>의 대표적 사례가 된다.

이상 어휘상의 특성으로, 정양 시의 지역어가 자연, 동물, 식물, 사람, 의복, 음식, 가옥, 농경, 민속 등의 여러 층위에서 두루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자연 현상’, ‘동식물’, ‘식생활’, ‘농경문화·민속문화’ 등과 관련하여 향토적인 농촌 세계와 농촌의 농경의례 등 전통적인 풍물과 풍속을 재현하는 데 사용된 정양 시의 지역어는 전북 농민들의 정서와 생활상을 충실히 반영한 심층 언어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 전봉관, 『백석 시의 방언과 그 미학적 의미』, 『韓國學報』 제26권 제1호, 일지사, 2000, 134면.

## 3.3. 문법상의 특성

발화자의 구어체를 표음주의에 입각하여 연철 표기한 정양 시의 지역어는 당시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다양한 층위의 문법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실제 발화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농촌사람들의 구술어를 그대로 옮겨 놓은 서술시에는 등장인물의 대화 속 언어 배열이 지역어 문법 구조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이러한 문법 요소나 문법 구조가 화용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소박하고 투박한 생활 정서가 사실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 |                    |            |
|--------------------|------------|
| (1) 해산 뜨거나 말거나     | — 「해돋이」    |
| (2) 꿀 부튼 개맹키로 마리어  | — 「화순둔병」   |
| (3) 새복버텨 이계 먼 지시대야 | — 「곡우(穀雨)」 |
| (4) 넘덜 빌러 간 새예     | — 「해돋이」    |

위는 ‘조사’의 쓰임과 관련된 문법 양상들이다. 표준어 ‘야’에 대응되는 (1)의 ‘샤’는 중세·근대국어에서 ‘강조’를 나타내던 특수조사였다. 이들이 ‘이제샤’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성분과 연결되면 ‘이미 때가 늦었음’을 ‘강조’한다. 그런데 (1)의 ‘샤’는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이 아남’을 ‘강조’하고 있다. (2)의 조사 ‘맹키로’는 ‘유샤’의 의미를 가진 표준어 ‘마냥’ ‘같이’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한자어 ‘모양(模樣)’에서 유래하였다. ‘맹이로/맨치로/맨키로’ 등의 이형태를 갖고 있는 ‘맹키로’는 ‘모양’ 혹은 ‘마냥이 축약된 ‘맹’에 부사화 파생접사 ‘-이’와 ‘-로’가 결합된<sup>24)</sup> ‘맹+이+로’가 ‘-가치’와 서로 혼태되는 과정에서<sup>25)</sup> ‘맨치로/맨키로’와 함께 쓰인 것으로 보인다. (3)의 ‘버텨’는 표준어 ‘부텨’에 대응되는데, 흔히 이 ‘버텨’는 ‘부텨/부툼’의 이형태를 갖는다. (4)의 ‘예’는 양성모음 뒤에서는 ‘애’, 음성모음 뒤에서는 ‘에’, ‘ㅣ’모음 뒤에서는 순행 동화에 의해 ‘예’가 쓰였던 중세국어의 자취를 보여주는 역사적 잔존형 조사이다.

24) 최전승 외 4인, 『전북방언의 특징과 변화의 방향』, 『어학』 제19권,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1992, 112면.

25) 이태영, 앞의 책, 510면.

- (1) 7. 버서노은 옷히고 신발허고는 누가 몰르고 주서간는 개비대야 — 「화순동병」  
 어떤 연놈드리 이 물 머꼬 그 지랄더를/앵가니도 허싼능개비여 — 「우물가」  
 작두여다가 싹뚝 찢라낼 꺾 그런능개비여잉 — 「내외」  
 또 데모방학 헛능개비네/암만허도 나라가 망할랑개비여 — 「물정 모르는」  
 ㄴ. 암시랑토 안코만/야가 시방 또 엄살인갑다 — 「이마를 짚고」  
 낮거리나 강그라진 잠자리는/그렇게 감해주는갑다고 — 「고지머기」  
 하이고 이 쓸개 빠진 노마 인자는 나도/쓸개가 다 빠져뿌런능갑다  
 — 「관쇠의 쓸개」  
 (2) 천벌처럼 그 달빛을/뒤저쌓는다 — 「달빛-빈집의 꿈 9」  
 하도 귀 아프게 들어싸서 — 「평화적」  
 인삼녹용을 먹어싸면/제때에 숨이 안 떨어진다고 — 「봄날은 가고」  
 (3) 정순아보고자퍼서죽겠다씨필 — 「토막말」

위는 ‘보조용언’과 관련된 문법 양상들이다. 정양 시에는 (1)에서와 같이 추측을 나타내는 ‘-개비다’ ‘-갑다’의 보조용언이 자주 나타난다. 이것은 ‘보다’가 본용언과 연결되어 ‘-나가 보다’로 쓰이는 표준 문법과 달리, ‘-능개비-/능개비-/능개비-/랑개비-’의 유형과 ‘-나갑다/-는갑다/-능갑다’의 두 유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것은 “-나가 보-’의 ‘보-’가 ‘비-’로 변화함으로써 ‘-능개비-’의 형태로 실현’되거나, “‘비-’의 모음 /ㅣ/가 탈락한 결과, ‘-능개비-’가 ‘-능갑-’으로 실현”<sup>26)</sup>되었기 때문이다. (2)의 ‘쌓는다’는 표준어 ‘대다’에 해당하는 보조용언으로, 행동이 ‘반복’되거나 행동의 ‘정도가 심함’을 드러낸다. 본용언과 연결되어 ‘-고 싶다’로 쓰이는 표준어와 달리 (3)의 ‘-고 잡다’는 지역어의 전형적인 문법 구조를 보여주는, ‘희망’을 뜻하는 보조용언이다.

- (1) 아 글씨 존 일도 아닌디 — 「화순동병」  
 뭘시든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 — 「황소개구리」  
 (2) 바람 들웅개 되창문이나 좀 단으쇼잉 — 「지평선」  
 맹년으 우리 동네 와서 살 양만잉게 — 「산토끼탕」  
 이게 먼 지라랑가 몰르건네 — 「화순동병」  
 (3) 인절미 머급서 와꾸마나라우 — 「관쇠의 쓸개」

26) 강희숙, 「김용택 시어의 방언 문법론, 『우리말글』 제28권, 우리말글학회, 2003, 20면.

아니, 오늘 찐나락 당군답서 — 「곡우(穀雨)」  
 물 가란끼나 지들림서 그냥장 — 「우물가」

위는 ‘연결어미’와 관련된 문법 양상들이다. 정양 시에는 전북 지역의 특징적 연결 어미인 ‘-는디’ ‘-오게’ ‘-음서’가 두루 나타난다. (1)에 쓰인 ‘-나디/-는디’는 표준어 ‘-나데/-는데’에 해당하는 연결어미이다. ‘ㄱ’이 ‘ㄷ’로 변화한 것은 “전설의 위치에서 수행된 모음 상승(vowel raising)의 결과”<sup>27)</sup>이다. (2)의 ‘-오게/-잉게’ ‘-잉가’는 표준어 ‘-니까/-이니까’ ‘-인지’에 대응되는 연결어미이다. ‘-오게/-잉게’는 ‘-으니까’의 ‘응게’와 함께 전북 지역어에서 널리 쓰이는 연결어미이다. (3)의 ‘-음서’ ‘-답서’ ‘-림서’는 표준어 ‘-으면서’ ‘-다면서’ ‘-리면서’에 대응되는 연결어미이다.

- (1) 고생 많았지요? 인자 분이 쪼께 풀려요? — 「술 뒤지는 날」  
 그냥 우습시나 인절미 한소쿠리 주시던디요 — 「판쇠의 쓸개」
- (2) 슬 쇄고 이거시 지방 메뻬쨌여 — 「우물가」  
 소위나라는 거시 빌면 빌수록 걸레쪽가치 너덜너덜허지능 거시여 — 「해돋이」
- (3) 아 조용 좀 히여 아떨 다 깁당개 — 「곡우(穀雨)」  
 텔레비에서 비압도 잡어떡터랑개 — 「황소개구리」
- (4) 평일도 아닌디 웬 일디다야 — 「물정 모르는」  
 아무디나 새끼를 퍼지른대야 — 「황소개구리」  
 학생덜이 허라는 공부는 안허고/똥 지랄들이대야 — 「물정 모르는」  
 하이고 이게 누구대야, 우성이 아녀? — 「꽃각씨 할머니」
- (5) 언지나 철이 좀 들랑가/막된 것 좀 허지 말어라일 — 「이마를 짚고」  
 채수 업슬 탄디 그걸 누가 주서가쓰까일 — 「화순동병」  
 몰라보거꾸마일, 하이고 꽃각씨 아주머니, 아직도 영 고우시네요일 — 「꽃각씨 할머니」

위는 ‘중결어미’와 관련된 문법 양상들이다. (1)과 (2)는 상대높임법의 용례들인데, 정양 시에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관계로 예를 2개씩만 수록하였다. (1)의 ‘-요’는 두루높임의 기능을 갖는 ‘해요체’ 중결어미로, 의문형과 평서형에 모두

27) 위의 논문, 18면.

사용되었다. (2)의 ‘-어’는 두루뎃춤의 기능을 갖는 ‘해체’ 종결어미로, 역시 의문형과 평서형에 모두 사용되었다. (3)의 ‘-당개’는 앞서 말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강조’하는 의미의 ‘-다니까’, ‘-랑게’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간접 인용’할 때 쓰는 ‘-라니까’에 대응되는 두루뎃춤의 ‘해체’ 종결어미이다. 그런데 원래 연결어미로 기능하는 이들 형태소는 (3)에서처럼 종결어미로 더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sup>28)</sup> (4)에는 조사 ‘야/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조사는 “두루뎃춤에 해당하는 ‘해체’의 종결어미 다음에 쓰여 아주뎃춤인 ‘해라체’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문법소”<sup>29)</sup>이다. (5)의 종결어미 다음에는 ‘잉’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잉’은 ‘강조, 확인, 친밀감의 확인’이라는 세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정양은 이 ‘잉’이 표준어로 바뀌치기가 안 되는 전북 지역어의 독특한 표현임을 강조하면서, “내가 너를 믿는 만큼 너도 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폭적인 신뢰의 교환을 전제로 한 다정함과, 그러기에 더 당당하고 부담없는 부드러운 강요의 뜻이 한 데 뒤섞여 있는 말”<sup>30)</sup>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상의 문법상 특성으로 살펴본 것처럼 조사 ‘맹키로’, 보조용언 ‘-능개비/-능게비/-랑개비-’ ‘-능갑다’, 연결어미 ‘-ㄴ디/-는다’ ‘-ㅇ게/-잉게’ ‘-잉가’, 종결어미 ‘-유’ ‘-여’ ‘-야’ ‘-당개/-랑게’ ‘잉’에는 혀와 입을 조금만 움직이거나 울림소리 ‘ㅇ’을 사용하여 말씨를 부드럽게 하는 전북 지역어의 특징이 반영되었다. 특히 종결어미 ‘-유’ ‘-여’ ‘-야’ ‘-당개/-랑게’ ‘잉’ 등의 장단과 가락을 길게 늘어 빼는 장음은 전북 지역 전통문화 양식인 판소리에 영향을 미쳤고<sup>31)</sup>, “한겨울 소리꾼들을 따라다”(『쑥대머리로 1』<sup>32)</sup>)니며 소리를 익히고 판소리 평론집까지 출간했던 정양이 그의 시에 이러한 판소리의 장단과 가락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8) 이태영, 앞의 책, 436-437면.

29) 강희숙, 앞의 논문, 14면.

30) 정양, 앞의 글, 83면.

31) 이태영, 앞의 책, 198-199면.

32) 정양, 『빈집의 꿈』, 푸른숲, 1993, 92면.

## 4. 정양 시에 수용된 지역어의 미학적 기능

시의 생명은 언어 구사 능력에 달려 있으므로, 시문학에서는 언어 활용이 매우 섬세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인은 표준어, 지역어, 비속어, 개인어 등을 새로운 문체 자질로 삼아 다채로운 시적 효과를 획득한다. 이 중 지역어를 시적 전략으로 채택하는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표준어를 지배적인 시어로 삼으면서 시어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어를 구사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표준어가 지배적인 시편들과 지역어가 지배적인 시편들로 나누어 구사하는 경우이다. 정양의 지역어는 이 두 경우가 시의 성격에 따라 다채롭게 수용되면서 그 미학적 기능을 달리하고 있다. 주로 묘사와 진술로 이루어지는 서정시의 경우에는 전자의 방식을, 구비문학인 설화·전래동화·전래동요를 차용하거나 대화를 직접화법·간접화법으로 인용하는 서술시의 경우에는 후자의 방식을 채택한다. 이 중 설화·전래동화·전래동요를 차용할 때는 표준어가 지배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직접화법·간접화법의 대화를 사용할 때는 지역어가 지배적인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 4.1. 서정시: ‘낯설게하기’와 유려한 운율과 이미지의 청신성

서정시의 경우, 정양의 지역어는 풍부한 어휘력과 섬세한 감각을 언어 예술 차원에서 미학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낯설게하기’(defamiliarization)를 통한 시적 상상력과 카타르시스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정양의 지역어는 유려한 운율과 이미지의 청신성으로 기존 문학어의 타성에 충격을 가하면서 문체상의 효과를 창출한다. 김용직에 의하면, “현대시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그 심상이라든가 운율의 기능적인 확보 여부다. 그런데 方言의 효과적인 사용으로 그것이 가능한”<sup>33)</sup>다. 정양 시의 지역어 역시 이 같은 시적 자질을 확장하기 위해 구사된 것이므로, 서정시에 나타난 지역어의 미학적 기능을 품사론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33) 김용직, 『方言과 한국문학-文學作品에 나타난 方言의 문제-』, 『새국어생활』 제6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1996, 184면.

기울던 햇살이/화들짝 놀라 숨을 멈추는 순간//무당거미가 정정정정 다가와/먹이  
를 챙기려다가//담뱃볼에 발가락을 다쳤는지/어쩔 줄을 모른다//정정정정 다리를  
질며/무당거미는 풀숲으로 달아나고

— 「기울던 햇살이」 부분

쌍인 눈 해집고/복수초가 놀미옴한 얼굴을 내민다/얼음 사이에서 피기에/얼음새꽃  
이라고도 한다지/눈도 얼음도 안 가리고 저렇게/막무가내로 피는 까닭을/살얼음  
끼는 골짜기에서/안 보아도 다 안다는 듯이/경칩날 밤 노랑게 산개구리 운다

— 「경칩(驚蟄)」 전문

정양 시의 지역어에서 ‘낯설게하기’의 시적 자질은 ‘부사’<sup>34)</sup>와 ‘형용사’<sup>35)</sup>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기울던 햇살이」는 묘사의 사실성을 얻기 위해 유사 음운을

34) 정양이 사용한 지역어 부사어는 다음과 같다. 괴안시리(괘스래, 괜히), 그나지나(그나저나), 그냥장(그냥저냥), 그라너도(그렇지 않아도), 그럭게(그렇게), 그럭게(그러니까), 길다랑게(기다랑게), 꺼꾸로(거꾸로), 날마닥(날마다), 낭중예(나중에), 되나캐나(아무렇게나), 덩그라니(덩그렇게), 머더러(뭐하려고), 뤼시든지(무엇이든지), 싸그리(깡그리), 썩판(생판), 안직(아직), 암만혀도(아무리 해도), 앵가니도(어지간히도), 어저지로(억지로), 어치케(어떻게), 언지(언제), 언징가는(언젠가는), 앵간치(어지간히), 여저짓(여태), 으레깸(으레), 으시딱딱(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인자(이제), 인자사(이제야), 절때(절대), 조께 · 쪼께(조금), 지푸레(제풀에), 짫짜시(짫짜이), 과씩(바씩)

특히 의성어/의태어로 사용한 정양의 지역어 부사는 다음과 같다. 덜퍼덕(덜퍼덕), 철퍼덕(철퍼덕)/경경경경, 까락까락(일일이), 눈깜뻡깜(얼렁뚱땅, 대충대충), 더글더글, 부르르 부르르, 썩기썩기(빨리빨리), 왔다리갔다리(왔다갔다), 우웅우웅 우루웅, 정경정경, 히빠쭉 히빠쭉

35) 정양이 사용한 지역어 형용사는 다음과 같다. 강그라지다(자지러지다), 굴뚝하다(배가 고픈 듯하다), 그들막하다(그들먹하다), 걱정스럽다 · 걱쩍스럽다(걱정스럽다), 낙착없다(영락없다), 널널하다(여유 있다), 넘새스럽다(창피스럽다), 놀미옴하다(노랑다), 놀짱하다(노랑다), 매투다(맴다), 매편시킴하다, 무거옴다(무겁다), 부끄러옴다(부끄럽다), 빠다(모자라다), 섬뚫하다(섬뚫하다), 송악하다(흉악하다), 시끈거리다(시끈거리다), 쓰잘 데 없다 · 쓰잘때기 없다(쓸데없다), 알랑허다(알랑하다), 암시랑도 앵다(아무렇지도 앵다), 오지다(흡족하다), 이따만하다(이만하다), 징혀다(징그럽다, 지겹다), 택도 앵다(어렵없다), 툼툼하다(툼툼하다), 푹푹하다(답답하다), 향그럽다(향기롭다), 허구허다(하고맴다)

중첩시키거나 반복시킨 의태어를 사용하여 ‘낮설게하기’ 효과를 획득하고 있다. 무성음 두운 ‘ㄷ’과 ‘ㄱ’이 반복된 의태어 “정정정정”은 “먹이를 챙기려”는 “무당거미”의 성급함을 묘사하고 있는 지역어이다. ‘ㅇ’을 많이 사용하는 전북 지역 음운 구조를 응용한 “경경경경”은 “담뱃불에 발가락을 다”쳐 당황한 “무당거미”를 포착하고 있는 ‘방언형 개인어’이다. 자연 앞에 선 정양의 언어 감각을 입증해 주는 이들 첩어의 섬세한 결은 유려한 운율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경칩(驚蟄)」은 표준어로 묘사하기 어려운 미묘한 색채 형용사를 사용하여 ‘낮설게하기’ 효과를 얻고 있는 시이다. ‘노랗다’라는 의미의 색채어 “놀미움한”이라는 형용사에는 경칩날 “쌍인 눈 혜집고” “얼굴을 내민” “복수초”를 발견한 시인의 정서적 감흥이 담겨 있다. 정양은 절망 속에서 아름답게 돌아난 삶의 희망을 “복수초”에서 발견하여 그 신비롭고 경이로움을 그의 심미안이 찾은 지역어로 시각화하였다. 또 다른 시 「콩밭지거리」에도 ‘노랗다’라는 의미의 “놀짱하게”라는 색채형용사가 사용되었다. 콩밭에서 자란 “김칫거리”인 “열무”를 “놀짱하게 야들야들하게” 자란 것으로 묘사한 이 시에서도 정양은 오랜 관찰과 사색에서 찾은 일상적 사물의 아름다움을 지역어로 탁월하게 묘사하여 이미지의 청신성을 획득하고 있다.

갑오년 때개총 맞은 걸음걸이로/들판을 건너/함부로 드러놓고 훌어지는 바람  
— 「논두렁길에」 부분

까치집 깃드키 덩그라니/걸어놓고/가난이랑 그리움이랑 죄다/부러놓으리  
— 「이삿집을 옮기며」 부분

「논두렁길에」는 독특한 명사를 활용하여 ‘낮설게하기’를 극대화한 시이다. “때개총”은 갑오농민전쟁 때 쓰던 일본총을 폄하한 이름이다. 유종호가 시적 언어의 특성과 관련하여 “방언이나 생소어가 독자의 주의를 당겨서 기표를 특별히 의식하게”<sup>36)</sup> 함으로써 시적 요소를 간직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개총”의 의미를 모르는 독자들은 생소한 이 시어에서 소격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시는 “함부로” 부는 “바람”을 “갑오년 때때총 맞은 걸음걸이”로 의인화하여,

36) 유종호, 『시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 251면.

“바람”이 “건너”오는 “들판”을 갑오년농민전쟁을 봉기한 공간으로 확대하여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이삿짐을 옮기며』는 동사<sup>37)</sup> 활용에 지역어 문법을 적용하여 ‘낮설게 하기’ 효과를 얻고 있는 시이다. 동사 어간에 연결어미 ‘-듯이’에 대응하는 ‘-드키’를 붙여 활용시키는 것은 전북 지역어의 전형적인 비유 표현법이다. 따라서 표준어 ‘짓듯이’ 대신 ‘짓드키’를 사용한 이 시에는 표준어 ‘덩그러니’에 비해 작고 가벼운 느낌의 음성상징 효과를 내는 “덩그러니”와 함께 무욕의 삶을 추구하는 시적화자의 소박하고 정감 있는 정서가 “까치집 짓드키”에 함축되어 독자의 시적 카타르시스를 유발하고 있다.

#### 4.2 서술시: 집단적 경험 · 민족적 정서의 확장과 개인적 체험 · 인물의 성격 부각

지역어가 시문학에서보다 소설문학에서 더 빈번하게 수용되듯, 정양 시의 지역어도 서정시에서보다 서술시에서 더욱 본격화된다. 정양의 서술시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설화 · 전래동화 · 전래동요 등의 구비문학을 애잔한 ‘가락’을 지닌 구술 그대로의 지역어로 재현함으로써 집단적 경험과 민족적 정서를 강조하는 방식이다. 이때의 지역어는 지역적 특수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집단적 경험과 민족적 정서를 시공간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것은 정양이 삶의 원형으로서의 민족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해 말로 하는 문학 행위인 구비문학을 차용하여 지역어로 재해석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마을사람들을 중심인물로 설정하여 그들의 구어체 대화를 직접화법이나 간접화법으로 인용함으로써 개인적 체험과 인물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방식이다. 이때의 지역어는 채록자가 구술자의

37) 정양이 사용한 지역어 동사는 다음과 같다. 꾀쳐두다(숨겨두다), 끄리다(꾸리다), 내비두다 · 냅두다(내버려두다), 내쏘다(내버리다), 내팽겨치다(내팽개치다), 더글거리다(덕더글거리다), 디룩거리다(뒤룩거리다), 떠도니다(떠돌아다니다), 불러제끼다(불러젓히다), 뺨허다(비역하다, 벽하다, 성교하다), 쏘맹기다(쏘다니다), 쑤월거리다(뒤편지 떠들어대다), 앵기다(앵겨붙다), 열어제끼다(열어젓히다), 오줌제리다(오줌저리다), 움짓거리다(움직거리다), 충그리다(웅크리다, 머뭇거리다)

구술을 녹취해 놓은 자료처럼 투박하고 걸쭉한 말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사건의 사실성과 삶의 필진성을 드러내는 데 일조하게 된다. 그것은 정양이 근대적 사유 체계에서 이질적인 타자로 간주되었던 농촌사람들의 지위를 언어 주체이자 삶의 주체로 복원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마재마을 날망에는/세 아릅도 넘는 은행나무가 서있는데요/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 뿌리가/집집마다 골고루 뻗어 있다고 믿는데요//은행나무 아랫두리에는 예전에/사람 들어앉아 잠을 잘 만큼/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었답니다/과거에 낙방하여 낙향하던 어떤 나그네가/그 구멍 안에서 한나절이나 잠을 잔 뒤에/구멍 안쪽에 시를 한 수 써놓고는/들 건너 찰피산 모퉁이를 감아 흐르는/부용강물에 그만 몸을 던졌더랍니다

— 「은행나무 배꼽」 부분

떡 한 조각 주면 안 잡아먹지/떡 한 조각 더 주면 너/안 잡아먹지//이 땅의 호랑이들은 처음에는/떡 한 조각만 달라고 하더란다//고개고개 너머 어찌면 그리/고개도 많은지/호랑이가 으르렁대는 산모퉁이/침침한 고갯길마다/안 잡아먹히어 다행스러운/숨이 가쁘다 <중략> 팔뚝 하나 띠어주면/안 잡아먹지/정갱이 하나 띠어주면/안 잡아먹지 <중략> 고을마다 피먹은 이야기들이/깨물어도 깨물어도 소용없는/수수깡으로 자라서 쓰러진다

— 「수수깡을 씹으며」 부분

맨이름 그대로 그 이름은 정갱이가 모가지가 비틀리어 하늘도 땅도 못 알아보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몇 평생이 지나도록 빠빠지는 마당이나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손님 온다 마당 씨러라/오리쌀 주께 마당 씨러라/둥구야 봉구야 마당 씨러라/둥구야 봉구야 마당 씨러라

— 「둥구놀이」 부분

「은행나무 배꼽」은 말 잔등 같은 낮은 고갯길을 끼고 있어 “마재”라 불리는 고향 마을 “날망”에 자리한 “은행나무”에 관한 설화를 소재로 한 시이다. 고려시대부터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온 이 당산나무는 “과거에 낙방하여 낙향하던 어떤 나그네가/그 구멍 안에서 한나절이나 잠을 잔 뒤에/구멍 안쪽에 시를 한 수 써놓고는” 세상을 버린 애달픈 사연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람 들어앉아 잠을 잘 만큼/커다란 구멍”이 “배꼽” 크기로 줄어든 “은행나무”는 “나그네”의 “절명시”와 함께 폐촌으로 변한 이 마을의 운명을 암시한다. 나아가 이촌향도(離村向鄣) 현상으로 해체된 오늘날 농촌의 운명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정양은 위치와 관련된 “날망”과

“아랫두리”에 지역어를 사용하여 마을의 구석진 느낌을 더욱 강조하면서, 이 “은행나무” 마을에 “시글시글 스물거리는” “아직 신화가 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sup>38)</sup>를 신화적 상상력으로 복원하는 방식으로 근대 기획에 대한 저항을 시도한다.

『수수강을 씹으며』는 전래동화 ‘해님달님’을 지역어로 재구성하여 관(官)이 민(民)에 가한 폭거와 착취, 그로 인한 민(民)의 고통스런 삶을 “고을마다 피먹은 이야기”의 집단적 체험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시이다. 피지배 상태에 놓인 민중의 신산한 삶이 “고갯길”로 상징된 이 시에서 정양은 “수수강을 씹으며” 자란 고향 마을을 결코 이상적인 공동체로 신비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호랑이”로 상징되는 거대 권력의 폭력과 성의 억압과 무지와 가난 속에서 계급적 모순을 겪으며 살아가는 현실적 공간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떡 한 조각 주면 안 잡아먹지” “팔뚝 하나 띠어주면/안 잡아먹지/정갱이 하나 띠어주면/안 잡아먹지”의 모티프는 “이지스함 사주면 파병만 해주면 안 잡아먹지/핵 개발만 안 하면 안 잡아먹지 안 잡아먹지”(『호랑이 피』)로 변용되면서, 전래동화가 지닌 민족적 정서와 집단적 저항 의식이라는 의미망은 시공간적으로 더욱 확대된다. 그리하여 독자는 정양과 함께 “그리운 그리운 삭은 동아줄”의 전복성으로 이루어질 “호랑이 피 흥건”한 “이 세상”, 즉 폭력과 불평등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 참다운 인류공동체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둥구놀이』는 전래동요의 운율과 가락을 어린 시절에 불렀던 그대로 살려내어, 집단적 체험을 시대의 전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이다. “난리가 지나다니고 세상이 바뀔 때마다 사람좋은 얼굴이나 팔러 다니던 양지뚝 상일네 아버지”는 “세상이 바”뀌자 “어른 대접도” 못 받고 “봉구”라는 “맨이름”으로 불리며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다가 마침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다. 그런데도 “그 이름”은 여전히 “둥구놀이” 노래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정양은 “정갱이가 모가지가 비틀리어 하늘도 땅도 못 알아보고 마당을 쓸고 있”는 “풍뎅이” “둥구”를 격랑의 역사 속에서 강요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희생당한 순진무구한 인물들로 재유시킨다. “손님”으로 들어온 수임 이데올로기가 “몇 평생이 지나도록” “오리쌀 주께 마당 씨러라/둥구야 봉구야 마당 씨러라”라고 강요하고 있는 이 땅의 분단 현실을 전래동요의 운율과 가락을

38) 정양, 『길을 잃고 싶을 때가 많았다』, 문학동네, 2005, 5면.

통해 상기시키며 개인적·지역적 경험을 민족적·국가적 경험으로 확대하고 있다.

천생원이 만경 사는 형님에게 생일선물 보내려고/내일 새보그 맹경 좀 가따 와야 쓰거따 일러놓고/이튿날 새벽 판쇠를 아무리 찾아도 없더니 <중략> 너 시방 어디서 오냐?/맹경 가따가 오는 기리고마니라우/맹경은 머더러 가떠라냐?/어저꼬 가따 오라고 혀짜너유?/가따가 오란다고 그냥 빈소느로 가씨야?/아 글씨 가따가 오라고 혀짜너유?/그렇게 맹경은 가서 뒤시라고 현느냐 그 마리여?/가따가 오라고 혀서 와따고 혀짜라우/그렇게 머시라고 혀시대?/그냥 우습시나 인절미 한소쿠리 주시던디유/아치른 머건냐?/인절미 머금서 와꾸마니라우/그 인절미를 니가 다 머거씨야?/떡다봉게 그렇게 되야꾸만이라유//하이고 이 쓸개 빠진 노마 인지는 나도/쓸개가 다 빠져뿌런능 갑다/캐묻다 지친 천생원이 어이없어 웃는 동안/판쇠도 덩달아 라이방을 벗고/눈물을 찍어가며 웃었습니다

— 「판쇠의 쓸개」 부분

기수 아저씨 바람처럼 마을에서 사라진 뒤에도/마을에는 장구재비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아 그 장구재비가 글씨 각씨들 다 데리꼬/삼팔서늘 너머가때야/아 그 장구재비가 글씨/인공 때 남도 어디서 군평위원장을 혀때야/아 그 장구재비가 글씨/지리산에서 대장 노릇을 혀더래야

— 「아 그 장구재비가 글씨」 부분

실제 육성을 듣는 듯 인물 간 생생한 대화를 직전화법으로 재현하여 극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판쇠의 쓸개」는 말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해학적으로 부각시킨 시이다. 중심인물 “머슴 하판쇠”는 “멧돼지 배를 가르다가/주인영감 잡수실 쓸개를 제 입에 골격 집어삼키고” “새경도 못 받고 쫓겨온 노총각”인데, 이 “판쇠”와 “천생원”의 대화에는 전북 지역의 계층간 언어 사용법이 드러나 있다. 전북 지역어의 비격식체 상대높임법에는 “아주높임과 예사높임이 통합된 형태인 ‘허씨요체’, 예사 낮춤에 해당하는 ‘허소체’, 아주낮춤에 해당하는 ‘해라체’<sup>39)</sup>의 세 가지가 있다. 아주낮춤의 ‘해라체’ 의문형을 구사하는 “천생원”은 ‘확인’과 ‘강조’의 의미를 지닌 ‘-라냐’와 ‘-씨야’의 의문형어미로 “판쇠”를 거듭 추궁한다. 두루높임의 ‘허씨요체’ 서술형을 구사하는 “판쇠”는 ‘-라우’나 ‘-던디유’의 어미를 반복하며 말대꾸를 한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친밀도’가 담긴 이 ‘-라우’나 ‘-던디유’는 “판쇠”의 녀석같은 성격을 드러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혀짜너유?”로 되받아치는

39) 강희숙, 앞의 논문, 10면.

말투는 “관쇠”의 적반하장격 성격을 드러낸다. 그런데도 이 시는 “형님”에게 보낼 “생일선물”도 안 들고 빈손으로 “형님” 댁으로 갔다가 “형님”이 준 “인절미 한소쿠리”를 혼자 다 먹으며 돌아온 “관쇠”와 그것을 “캐묻다 지친 천생원”이 함께 “눈물을 짙어가며 웃”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이러한 결말은 두 인물의 넉넉한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듯 정양은 토박이 말투를 이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창조하고 인물 간 심정적 교류를 환기시키고 있다.

동네에 떠도는 소문을 간접회법으로 인용한 「아 그 장구재비가 글씨」는 지역어의 독특한 억양과 가락으로 풍문 속 사건을 실감나게 전달하고 있는 시이다. 물론 이 시는 일제 때 정용을 피하려고 타향에서 병어리 짓을 하며 머슴살이하다가, 해방이 되자 말문을 열고 월북하여 “인공 때 남도 어디서 군땅위원장”을 하고 “지리산에서 대장 노릇”을 한 “장구재비” “기수 아저씨”의 중요한 이데올로기 행적을 인용문 안에 넣음으로써 시적화자의 판단의 개입을 막은 아주 객관적인 시이다. 그런데도 “아 그 장구재비가 글씨”의 동일한 반복과 “너머가때야” “혀때야” “허더래야”의 장음 ‘야가 불러일으키는 청각 영상은 “꼬리를 물며” 바람결에 피지는 “풍문”을 시각화하면서, “장구재비”의 행적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와 같은 방식으로 진실된 것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감탄사 “아”와 “글씨”에 얽힌 억양으로 메아리처럼 형성되는 가락은 이념이 농촌 마을까지 휩쓴 우리 근현대사의 상황을 빠른 속도로 전달하면서, 이데올로기에 의한 상처와 그 미완의 심리적 여운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정양이 지닌 지역어와 지역문학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양 시가 수용한 지역어의 양상과 미학적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정양 시의 지역어 수용이 음운, 어휘, 문법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어가 수행한 미학적 기능 역시 서정시와 서술시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으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정양 시의 지역어가 무의식적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시적 자질을 활용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채택된 중요한 미학적 의장임을 확인하였다.

물론 이러한 지역어 수용 전략은 언어를 시의 질료로 인식한 정양의 언어 탐구와 실험 정신의 소산이었다. 정양은 지역어뿐만 아니라 고유어·유행어·속담·관용구·개인어, 심지어 “정순아보고자퍼서죽겠다씨떨”에서처럼 “대책도 없이 아름다운” “막말”(『토막말』)까지 다채롭게 사용하면서 그의 시를 수준 높은 언어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따라서 이 같은 개성적인 시어와 독창적인 문체로 언어의 광맥이 곧 시의 광맥임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고도로 정련된 지역어를 문화 유산이자 문화 자원의 하나로 축적시켰다는 데서 정양 시의 시문학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정양은 다양성과 자주성을 지닌 지역어를 기능적으로 사용하여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표준어가 강요하는 문화의 균질성에 저항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세계의 실상과 인간의 일상에 밀착된 심층 언어를 구사하는 농촌사람들을 언어 주체로 복원시켜 지역어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그 활성화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데서 정양 시의 지역문학적 가치 또한 입증할 수 있다.

나아가 정양의 지역어 수용은 지역문화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그의 독특한 세계 인식의 결과였다. 정양은 농촌을 휩쓴 자본주의 근대 기획에 저항하기 위해 해체되는 농촌 문화의 실상을 기록하고 농경 문화의 원형을 복원하였다. 따라서 ‘마현리’와 ‘수선리’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삶의 실체로서의 농촌사람들과 정신적·물질적 토대로서의 농촌 생활 양식에 깊게 밀착된 지역문화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했다는 데서 정양 시의 지역문학적 가치는 더욱 분명해진다. 물론 정양의 이러한 지역문학적 가치는 농촌공동체를 지향하는 고향 의식을 인류공동체를 지향하는 세계 인식으로 확장시키면서 특수성과 보편성의 동등한 가치를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글로벌리즘적 가치 또한 획득하게 될 것이다.

▮ 주제어 : 정양, 지역어, 지역문화, 지역문학, 음운, 어휘, 문법, 미학적 기능, 서정시, 서술시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정양, 『까마귀떼』, 은애, 1980.  
\_\_\_\_, 『수수깡을 씹으며』, 청사, 1984.  
\_\_\_\_, 『빈집의 꿈』, 푸른숲, 1993.  
\_\_\_\_, 『살아 있는 것들의 무게』, 창작과비평사, 1997.  
\_\_\_\_, 『까마귀떼』 증보판, 문학동네, 1999.  
\_\_\_\_, 『눈 내리는 마을』, 모아드림, 2001.  
\_\_\_\_, 『길을 잃고 싶을 때가 많았다』, 문학동네, 2005.  
\_\_\_\_, 『나그네는 지금도』, 생각의나무, 2006.  
\_\_\_\_, 『철들 무렵』, 문학동네, 2009.  
\_\_\_\_, 『입에 익은 말, 몸에 익은 말』, 『전북의 재발견-말』, 전라북도청, 2010.

### 2. 논문 및 단행본

- 강희숙, 「김용택 시어의 방언 문법론」, 『우리말글』 제28권, 우리말글학회, 2003.  
김양선, 「탈식민의 관점에서 본 지역 문학」, 『인문학 연구』 제10권,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3.  
김용직, 「方言과 한국문학-文學作品에 나타난 方言의 문제-」, 『새국어생활』 제6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1996.  
김혜원, 「정양 시에 나타난 지역문화의 양상과 지역문학적 가치」,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노용무, 「전북 지역 시문학의 연구 현황과 과제」, 『국어문학』 제51집, 국어문학회, 2011.  
송기섭, 「지역 문학의 정체와 전망」,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4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오하근, 「고향과의 화해」, 정양, 『나그네는 지금도』, 생각의나무, 2006.  
유종호, 『시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

- 윤홍길, 「기린은 목이 길어」, 정양, 『까마귀떼』, 은애, 1980.
- 이재봉, 「지역문학사 서술의 가능성과 방향」, 『국어국문학』 144호, 국어국문학회, 2006.
- 이태영, 「방언의 문화적 가치」, 『새국어생활』 제20권 제3호, 국립국어연구원, 2010.
- \_\_\_\_\_, 『전라북도 방언 연구』, 역락, 2011.
- 전봉관, 「백석 시의 방언과 그 미학적 의미」, 『韓國學報』 제26권 제1호, 일지사, 2000.
- 최명표, 「소문의 시적 구현 양상-정양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 최전승, 「국어 움라우트 현상의 유추적 확대와 화용론」, 『우리말글』 제31권, 우리말글학회, 2004.
- 최전승 외 4인, 「전북방언의 특징과 변화의 방향」, 『어학』 제19권,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1992.

KYOB O  
교보문고

[Abstract]

## The Aspects of Regional Language and its Aesthetic Function in Jeong Yang's Poems

— Focusing on Perspective of Regional Literature —

Kim, Hye-won

This study investigated on the aspects of regional language and its aesthetic function of Jeong Yang's poems in terms of regional literature that endowed substantial value to regional literature and adopted Jeonbuk regional language overwhelmingly in his poems now that he finds his literary identity out of regionality.

First this study identified his perception about regional language and regional literature. And then this study categorized and investigated his aspects of regional language into three: phonology, lexicology and grammar in linguistic perspective. Finally, this study examined the aesthetic function of regional language of Jeong Yang's poems in poetic perspective, after categorizing aesthetic function into two: lyric and narrative poetry.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Jeong Yang's poems in poetic literature in that his poems imposed poetic quality on regional language, adopting regional language through designing aesthetically and identified his value in regional literature in that he reestablished the position of regional language and explored identity of regional culture, making local people a linguistic subject.

**[Key Words]** Jeong Yang, regional language, regional culture, regional

literature, phonology, lexicology, grammar, aesthetic function,  
lyric poetry, narrative poetry

---

---

김혜원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박사 졸업

(561-781)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55, 이중현대아파트 107동 201호

전자우편 : khwon8782@hanmail.net

---

---

이 논문은 2014년 10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11월 20일에 심사  
완료되어 11월 2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